

# 古下 송진우는 세계사의 흐름을 미리 읽었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사장을 역임한 고하(古下) 송진우 선생의 탄신 133주년 추모식에서 발표된 윤풍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추모강연을 요약 게재한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1945년 12월 30일, 해방정국의 광풍(狂風)이고하 송진우(1890~1945)를 훑쓸고 갔습니다. 전날 새벽까지 밤을 새며 계속된 민족지도자 연설회의에선 반탁 민족주의 열풍이 거셌습니다.

고하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1925년 동아일보에 발표합니다.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명문입니다. 30대 후반인 그가 당대 세계의 누구 보다 세계사의 흐름에 정통했음을 증명합니다.

일제의 위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인 적로(赤露·공산주의 러시아)'가 태평양을 두고 경합하는 현실에서 '좌우협공의 위란(危卵)'에 빠져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식민화하고 중원을 점령한 뒤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침탈하려는 일제가 궁극적으로 '일·미 충돌'을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미·러 충돌'의 전조일 것이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도합 네 차례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도전에 직면했으며 그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 왔습니다. 7세기의 삼국통일, 16세기의 한·중·일 7년 전쟁, 20세기의 6·25전쟁이라는 세 차례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 이어 지금 우리는 21세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100년 전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를 해명한 고하의 고뇌를 우리가 곱씹어야 할 까닭입니다.

우리는 신(新)냉전이 신(新)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신열전의 개연성에 대비하는 국가대계 수립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하는 '자유권과 생존권'(<삼천리> 1932년 4월호)이라는 글에서 공동체 쇠락의 근본 원인을 해명합니다. 자유권과 생존권 양대 이념이 상호 선순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척하는 현실이 갈등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자유권과 생존권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하의 논변은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교호작용에 대한 성찰로 진화합니다. 자유권운동으로 시작한 민족운동과 생존권운동으로 출발한 사회운동은 '해방의 정신'에서 서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고하의 사자후는 현대 한국사회를 통타(痛打)합니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최고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사회가 한국과 한국문화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빛이 친란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고하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격상된 한국에서 젊은이들은 혼인과 출산을 거부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악입니다.

한국사회의 적대와 분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로 역사관과 정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상대방과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을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예컨대 국가 상징거리인 광화문광장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 동상을 우리가 함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비록 정치관과 역사관이 달랐을지언정 김구·이승만·김규식·여운형·조봉암·김성수·송진우 같은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보면 모두 조국을 되찾고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한 분들입니다. 넓고 깊게 한국 현대사를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강은 이들 민족지도자들의 공과 과가 담긴 지류들을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장대합니다. 그것이 고하가 꿈에서도 그리워 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고하는 사거(死去)했지만 그가 청사(青史)에 아로새긴 민주공화국의 꿈은 살아 약동합니다.